

연구제목 : 1929년 조선박람회의 재현을 위한 메타 아카이브 구현

I. 서론

I-1. 연구 배경 및 목적

I-2. 연구방법

II. 대상자원 탐색 및 현황

II-1. 기록물

II-2. 디지털콘텐츠

II-3. 인문학적 연구 검토

III. 조선박람회의 아카이브 구현 전략

III-1. 온톨로지 설계

III-2. 데이터베이스 구축

III-3. 서비스 시나리오

IV. 아카이브의 활용방안

VI. 결론(맺음말)

참고문헌

2020년 10월 8일

인문정보학 석사과정 이수민

I-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1929년 경북궁에서 개최된 조선박람회의 재현을 위해 관련 기록물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디지털아카이브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람회는 산업의 장려 및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각종 물산을 전시하는 장(場)으로서, 19세기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영국, 프랑스 등의 서구 제국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은 서구 박람회의 출품을 계기로 본토에서 여러 차례 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만, 만주 조선 등의 식민지에 같은 제도를 이식하여 식민지 경영의 성과를 드러내고자 했다. 국내에서는 1907년 통감부 주도하에 개최된 경성박람회를 시작으로, 강점 이후에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와 1929년의 조선박람회, 1940년의 조선대박람회 등 국가적 단위로 대규모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중 조선박람회가 개최되었던 1920년대는 1915년 공진회에 영향을 받아 품평회, 바자회, 물산장려회 등 크고 작은 군소박람회가 열려 ‘박람회의 시대’라고도 불린다. 1)오늘날 현대인에게 익숙한 백화점, 상점, 박물관 등 사물의 진열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원형이 박람회로부터 왔음을 상기해볼 때, 2) 근대 박람회의 운영구조 및 참여 주체와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는 일은 근대의 단편을 들여다보는 창구로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총독부의 주도 아래 개최된 세 차례의 박람회 가운데 1929년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북궁 구역에서 개최된 조선박람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3)

1929년 조선박람회는 시정 5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1915년의 조선물산공진회와 비교해 본격적인 종합박람회의 성격을 갖춰 개최되었다. 4) 이전보다 광범위한 물산을 다루었을 뿐 아니라 그 선전과 출품의 범위는 조선, 일본 본토, 만주, 대만, 홋카이도에 이르러 제국 일본의 판도를 망라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 일본 본토에서 개최된 박람회의 예산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 5) 국가적인 기획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 이어 조선박람회가 조선의 정치 지배 권력의 상징이었던 경북궁에서 열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과

1) 소규모의 박람회는 총독부가 개최한 박람회를 모방, 축소, 특화 시킨 것으로서, 도시를 중심으로 수산박람회, 기차박람회, 교육박람회, 산업박람회, 곡물공진회, 면업박람회 등 상품의 우열을 가리는 품평회적 성격에서부터 계몽과 사회교육의 기능이 혼합된 것까지 다양하였다. (전민정, 『일제시기 조선박람회(1929년)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1쪽)

2) 요시미순야, 이태문 역, 『박람회 : 근대의 시선』, 논형, 2005, 14쪽.

3) 하나의 박람회를 개최할 때 이전에 개최된 박람회를 참고로 하되, 그와 다른 차별점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경북궁 월내 구역에서 개최된 모든 박람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본고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관련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는 조선박람회(1929) 관련 기록물만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였다.

4) 일반적으로 공진회는 박람회보다 작은 규모의 박람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범위도 국가단위로 개최되는 박람회와 달리 지역구로 한정해 개최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우동선, 박성진 외 6인, 『궁궐의 눈물, 백 년의 침묵』, 효형출판, 2009, 308쪽.)

5) 조선박람회 개최를 위해 계획된 예산규모는 약 101만 2500원으로 1935년 대만박람회의 보조금 60만 원과 비교해서 일본의 식민지 박람회 가운데서도 상당한 규모로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각규, 『한국의 근대박람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302쪽)

달리 경복궁이 식민치하라는 정치적 지형 아래 대중과 산업사회, 소비, 오락이 만나는 종합 이벤트장으로 변모했으며, 보다 훨씬 복합적인 관계망들이 얽혀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1929년의 박람회와 1915년의 공진회와 달라진 점은 박람회장 부지, 예산 확대 등의 물리적 개편에도 있었지만, 박람회에 참여한 이들의 유형 및 양상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는 당시 조선박람회의 관람객이 100만 명을 웃돌았다는 사실 뿐 아니라, 관람객을 동원하기 위해 총독부에서 실시했던 각종 정책, 이를테면 지방민의 강제동원, 근대적 미디어를 통한 선전방식 등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조선박람회의 실체에 다가서는 출발점은 박람회 참여주체들이 남긴 기록물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조선박람회는 그 흔재적인 경향만큼이나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포괄한다. 당시 박람회의 운영을 담당하였던 주최 측이 발행한 공식적인 보고서 이외에도, 박람회를 직접 참관하고 그 소회를 글로 남겼던 지식인의 관람 기(記), 전시에 참여한 기업들의 신문 광고, 박람회 개최 경위를 다루거나 혹은 각종 사건사고를 보도한 민간 언론의 기사, 만평 또는 박람회를 기념하여 대량으로 인쇄되어 배포된 기념엽서와 사진, 포스터, 여행 책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시각 자료들은 문자기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박람회장의 풍경, 전시관의 외관, 일제가 표상한 조선의 이미지 등 조선박람회에 대한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그동안 조선박람회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박람회의 운영구조 및 정치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노력과 박람회장 내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외관 및 성격을 파악하려는 시도로 구분해 이뤄져왔다.⁶⁾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은 한정된 자료 안에서 조선박람회의 실체에 보다 다가가고자 했던 노력으로서, 조선박람회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선박람회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각 분과학문의 개별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박람회 관련 기록물을 부분적, 선택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기존 박람회가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인 시각적 지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조선박람회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기록사진, 포스터, 기념엽서 등 다양한 시각자료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⁷⁾ 조선박람회를 추적하는 데 근거가 되는 원천 또는 실물자료들이 전국의 박물관, 기록보관소, 민간 언론기관 등에 파편처럼 흩어져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날로그 환경 안에서

6) 전자의 경우 총독부의 박람회 개최 배경을 통해 정치적, 역사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후자의 경우 박람회장의 개별 전시관 또는 운영주체의 성격을 중심으로 전시관의 내용에 보다 집중한 점이 보인다. 이를테면 지방민의 박람회 체험 또는 경성의 도로망 구축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박람회 관련기록물의 시각적(미술사), 건축공간에 드러난 (건축학), 기생들의 가무공연(공연사), 경성과 지방의 교통망(지리학, 공간정치학) 등이 그것으로 전자와 후자 모두 개별 분과 학문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조선박람회의 맥락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는 3장에서 다룬다.

7)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 관리법) 제 3조(정의)에 따르면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가리킨다. 이 중 정사진(기록사진)은 생성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기록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점을 가진 매체로서 시청각기록물로 분류된다.

이러한 모든 유형의 자료를 담아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때문에 조선 박람회라는 사건의 실체를 쫓는 누군가 조선박람회라는 거대한 국가적, 종합적 성격의 이벤트에 참여했던 모든 참여자들을 한눈에 쫓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정리하면 현재 조선박람회 관련 기록물은 이용자 입장에서 1) 관련 기록물들이 각각 개별 기관의 소장 원칙에 따라 구축되어 있어 이를 통합해서 살펴보기 어렵고, 때문에 2) 조선박람회라는 역사적 사실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오늘날 과거의 역사적 사건인 조선박람회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박람회의 본질적인 성격인 ‘전시(展示)’라는 시각적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자원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한다. 디지털아카이브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자원을 웹이라는 공간 위에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이점을 갖는다. 이는 이미 웹상에서 디지털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 자료들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조선박람회라는 의미적 맥락 아래 새롭게 재편되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개별 연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담고 있는 아카이브와의 연계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김현이 제시한 메타아카이브⁸⁾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I-2. 연구방법

기록물의 아카이브 구축에 앞서 대상자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우선 조선박람회 개최 당시 생산된 기록물의 유형 및 분포 현황을 파악한 뒤, 각 개별 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현황을 조사한다. 기록물 수집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은 조선박람회라는 대상 세계를 재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시공간 데이터이다. 이때의 기록물들은 문학작품, 신문잡지의 만평 또는 사설, 포스터 등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더라도 조선박람회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수집 및 분석 대상 범위에 포함한다.⁹⁾

데이터 수집 범위는 조선박람회가 개최기간인 1929년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총독부 또는 기타 관련된 단체들이 박람회 개최를 위해

8) 오늘날 박물관이나 기록관과 같은 개별 기관들이 구축하고 있는 아카이브는 일정한 원칙과 체계에 따라 소장품을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메타아카이브는 이러한 특정 개별 아카이브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곳의 실물 아카이브를 묶어 다수의 아카이브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아카이브의 아카이브’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개별기관들이 수집 및 조사 연구의 활동을 통해 실물을 발굴하고 보존하는데 역점을 둔다면, 메타아카이브의 역할은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및 자료들을 모아 가상공간에서 통합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현,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마스터플랜 연구, 2020. 3. 국학진흥원)

9) 이러한 관점은 조선박람회를 다루는 기존 선행 연구자들의 관점에서도 적용되었다. 하세봉은 논픽션 자료 외에 도상자료와 문학작품 등의 작품을 박람회 재현의 자료로 다루면서 역사서술의 관점에서 ‘누가 ~을 했다’는 논리의 역사학과 함께 ‘~인 듯하다’는 이른바 감각의 역사학도, 필요함을 연구 논지에 밝히고 있다. (하세봉, 「식민지권력의 두 가지 얼굴 - 조선박람회(1929년)와 대만박람회(1935년)의 비교 -」, 『역사와 경계』, 제 51권, 2004, 114쪽)

준비하는 과정 역시 다루도록 한다. 이를테면 박람회 개최 이전 총독부가 제정한 법령 또는 박람회의 특설관을 운영했던 개인 또는 기관단체들이 전시관 출품을 모으는 과정 역시 포함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지방 협찬회의 각 도 특설관 출품 및 운영에 관한 모의과정을 개별 신문 기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기울였다. 정리하면 조선박람회의 시간적 범위는 박람회 주최 및 참여주체들이 박람회 개최를 위해 준비한 과정 및 전시 종료일까지 운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구분	범위
공간적 범위	경성역 ~ 남대문동 ~ 광화문동 ~조선박람회 장(경복궁 구역) ~ 총독부청사 및 관사
시간적 범위	박람회 운영주최 및 참여자들의 박람회 준비 및 운영에 관한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

표 1 조선박람회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범위

본고의 서비스 결과물이 될 아카이브의 시각적 구현 범위는 조선 박람회가 개최된 경복궁 구역이지만, 일부 관련된 건축물의 경우 경성시까지 범위 내에서 데이터 수집 범위에 포함하였다. 가령 조선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경성역¹⁰⁾에서 회장 정문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박람회 사무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었으므로 시각적 재현 범위에는 제외하되, 데이터 수집 및 표현 범위에는 포함하였다. 마찬가지로 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열린 일부 행사들이 당시 박람회장 바깥의 경성공회당, 상업회의소 건물 등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범위에 포함하였다.

앞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박람회 대상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온톨로지를 설계한다. 수집된 데이터들에 대한 개체 탐색을 바탕으로 노드를 확정하고 노드들 간의 관계를 링크데이터로 연결한다. 이때 온톨로지 설계는 박람회 참여주체와 박람회장 내의 공간정보 및 시간정보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온톨로지 설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구현하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데이터베이스 적재는 MS-Excel과 MS-SQL을 이용하였다. 적재된 데이터는 웹상에서 기계가 가독할 수 있는 형태로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에는 조선박람회장으로 활용되었던 경복궁 구역을 현재의 위성지도와 매핑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시각화하도록 한다.

10) 경성역은 조선박람회 개최 당시 지방민들을 박람회장으로 안내하는 첫 관문이었다. 경성역에서 남대문동을 거쳐 회장 입구인 광화문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박람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관람객 유치를 위해 계획적으로 운영되었던 선전구역으로 각종 제등행렬과 장식조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경성협찬회, 『조선박람회경성협찬회보고서』, 1930 「개회전의사업」 참고.)

II. 대상자원 탐색 및 연구 현황

II-1. 기록물

조선박람회 관련 기록물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박람회 참여자들이 박람회라는 시공간 안에서 각각 어느 특정 공간(전시관)과 특정 시간(박람회 사건, 행사, 개최 준비) 중 어디에 위치했는가, 즉 이들 정보와 각각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에 관한 정보이다.

박람회 참여 주체들은 박람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개별 전시관 및 건축물 구성에 미친 영향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기존의 연구 논저들을 통해 파악되는 주체들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단체 및 개인들까지 포함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구분하면 조선총독부 및 경성협찬회와 같이 박람회의 개최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던 A. 박람회 주최자와 B. 박람회 내 개별 전시관의 전시내용 및 출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단체(기관 또는 기업) 및 개인, C. 전시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나 박람회를 직접 다녀온 후의 생각을 글로 남기거나 박람회 사건 및 행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기타 관계의 구성원들이 포함된다.

A. 박람회 주최자	조선총독부, 경성협찬회, 박람회사무국
B. 전시 참여자	개별 전시관 운영 주체 또는 전시 관여 또는 참여자
C. 박람회 관람객	민간언론사, 일반 관람객, 관람기 기고 논객, 여관업자 등

표 2 조선박람회 참여자 유형

II-1. 기록물

1) 박람회 주최자¹¹⁾와 관련된 자료

(1) 총독부 발행 문헌

경성협찬회¹²⁾에서 발간한 『(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報報告書』(1930)(이하 ‘『보고서』’)에는 박람회의 기획취지, 귀빈 접대, 박람회장 내외의 장식, 관람객수, 그 외 박람회

11) 조선박람회의 개최 및 운영을 결정하고 종료일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주체는 조선총독부이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자료는 박람회의 운영 경위를 파악하는데 중심이 되는 핵심 기록물로서, 조선박람회의 시공간적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이다.

조선박람회 개최는 조선총독부 식산국(殖産局)에서 관장하였으며,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조선박람회사무국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였다. 여기에 경성부와 각 도에 협찬회가 구성되어 사무국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12) 경성협찬회는 조선박람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던 조직으로 박람회 개최를 위해 조직되었다. 각도의 사업가와 회사들을 대표하는 일본인 및 조선인들이 중심이 되어 1929년 8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주요 임원에는 총독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있었다. 경성협찬회는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해 선전활동과 흥행 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운영하였다.

장 안에서 열렸던 부대행사와 예산에 관한 사항들을 망라하여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박람회 개최 이전 선전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선전 및 흥행사업과 협찬회 운영시설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을 뿐, 개별 전시관의 운영 사항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가령 각 전시관별로 참여한 기업 및 단체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였는지, 전시관에 어떤 물품이 출품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박람회를 개최했던 총독부가 공진회와 달리 조선박람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 선행연구자들은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타 문헌 및 신문잡지 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한편 『보고서』에는 박람회 배치도, 개최 당시 배포하였던 우대권, 다과권, 행사입장표, 전시관별 입장권 등의 시각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朝鮮博覽會記念寫眞』(1930)(이하 『사진첩』)¹³⁾은 조선총독부가 공식 발행한 기념사진첩으로, 조선박람회의 동선을 따라가며 박람회장의 풍경을 사진을 담고 있다. 조선박람회에 관한 가장 풍부한 사진 자료를 담고 있으며 개별 전시관의 모습을 규명하는데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조선박람회 규칙, 예산범위, 운영원칙 등 조선박람회 운영의 큰 틀을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박람회의 개최 및 준비 과정을 알 수 있는 관보 기사는 총 13건이다.

그 외 『시정25년사(施政二十五年史)』(1935)는 조선총독부에서 1935년에 발행한 관찬 사서로 데라우치 초대 총독부터 총독 임시대리 우가키 카즈시게에 이르기까지 총독 시기별로 주요 법령과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도를 정리해 반영하고 있다.¹⁴⁾ 시정 25년사에서는 조선박람회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위의 발행문헌 등을 통해 조선박람회 대상자원 세계의 개최 경위, 운영 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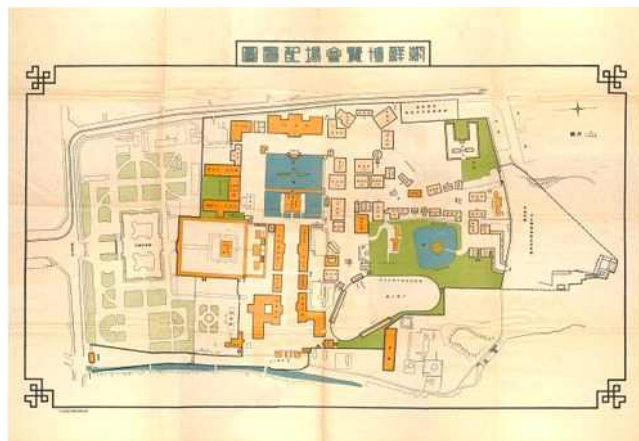


그림 2 조선박람회 배치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3)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18년 건국대학교 아시아콘텐츠연구소에서 발행한 영인, 완역본을 참고하였다. (건국대학교 아시아콘텐츠연구소, 『조선박람회기념사진첩』, 소명, 2018.)

14)본문에서는 민속원에서 간행한 완역본 『국역조선총독부30년사』, 2018을 참고하였다. 역자는 총독 정치를 심하게 왜곡하거나 미화한 부분에 유의하여 각주로 관련 사실을 지적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박람회 주최 측	총독부 발행 문헌, 기타자료	『(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報報告書』(1930), 『朝鮮博覽會記念寫眞』, 『시정25년사(施政二十五年史)』(1935) 『조선총독부 관보(朝鮮總督府官報)』 조감도(鳥瞰圖) 및 전시관 도면 배치도 포스터, 기념엽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每日申報)』, 『경성일보사(京城日報)』
	총독부 산하 기관 및 기업의 연속 간행물	『조선철도협회지(朝鮮鐵道協會誌)』,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 등
전시관 운영 및 출품 기업에 관한 자료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 활용
	각종 편람 및 안내서	『朝鮮博覽會便覽』, 『조선박람회안내』
	재조선일본인 단체 및 기업 발행 잡지	『조선과건축(朝鮮と建築)』
박람회 관람객에 관한 자료.	민간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연속 간행물	『신민(新民)』, 『조선지광(朝鮮之光)』, 『개벽(開闢)』, 『별건곤(別乾坤)』 등
	문학작품	『광분(狂奔)』
	기타 개인기록물	『윤치호일기(尹致昊日記)』, 박람회 사진 기자 노구치산시로(野口三四郎)의 그림 등.

표 3 유형별 분류에 따른 조선박람회 기록물

II-2. 웹 자원

1)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자료 및 디지털콘텐츠

(1) 『우리역사넷』¹⁵⁾

‘한국 근·현대사 사진 모음’은 시기별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 자료들을 콘텐츠를 구축한 페이지이다. ‘1920년대 사회상’ 페이지에서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 통치기를 중심으로 당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개발과 수탈’ 하위 카테고리 안에 조선박람회 개최 당시의 사진을 전시관별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유형 및 개수가 다양하지 않고, 전시관 명칭만을 표기하고 있어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다.

(2)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자료(조선총독부 직원록)』, 『한국근현대잡지자료』, 『한

15)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역사콘텐츠 제작 및 모금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http://contents.history.go.kr/mphoto/1920/1920_period02_03.do

국회사조합자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직원록자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디지털 자료로 구축한 직원록 자료 중 1910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총독부 직원록』 자료를 참고하였다. 데이터 스키마는 조사 시기, 소속, 관직, 관등, 공훈, 이름, 참고사항 등을 RDB형태로 구축하였으며 이며 본 데이터의 인물 속성 설계에 따라 구축하였다.

한국근현대잡지자료는 근현대잡지 자료는 대한제국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학술, 사상, 사회, 문예 등 각 분야의 정제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로 근현대사 연구의 기초 자료이다. 근현대잡지 총 83종을 원문 전체 또는 목차만을 입력하여 디지털화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원문을 모두 입력한 잡지 중 일제시기에 발행된 『개벽』, 『별건곤』, 『삼천리』, 3종을, 나머지 잡지는 목차와 제목만 제공하고 있다.

『한국회사조합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 근현대 경제사 연구의 기본 자료인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시 출간된 회사 관련 각종 요록류들을 종합하여 만든 데이터베이스이다. 《朝鮮銀行會社要錄》과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를 토대로 각 은행 및 회사 관련 자료에서 아래 요소를 추출하여, 1.조사시점 2.회사명 3.본점주소 4.지점주소 5.설립일 6.자본금 7.불입금 8.적립금 9.배당률 10.업종 11.목적 12.사장 및 대표 13.중역 14.주식상황 15.대주주 16.출전의 데이터를 웹서비스하고 있다.

2) 국립중앙도서관

(1) 고문헌 자료 원문보기 서비스¹⁶⁾

『조선박람회경성협찬회보고서』, 『조선박람회기념사진첩』, 『조선총독부관보』의 원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원문을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2)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¹⁷⁾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의 고신문 자료를 제공한다. 『매일신보』, 『경성일보』와 같은 총독부 기관지 이외에 『중외일보』와 같은 민간지, 일본어신문 또한 구축되어 있어 조선박람회와 관련해 가장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LOD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와 연계하기 유리하다. 다만 일본어 신문과 1920년대 신문기사들은 제목 및 키워드를 제외하면 이미지파일로만 제공하고 있어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검색도 제한적이다. 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언론사가 원문을 전산화하여 텍스트로 구현하고 있는 점과 구별되는데(『동아일보』는 일부 유료로 열람 가능), 반대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카이브에서는 LOD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데이터 활용도 면에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16) <https://www.nl.go.kr/>

17) <https://nl.go.kr/newspaper/>

3) E-뮤지엄¹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축한 박 전국의 국·공·사립과 대학박물관 등 263개 기관이 참여하여 소장품을 공개하고 있다. E-뮤지엄의 조선박람회 관련 키워드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수집된 기록물 구축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소장처	기록사진	포스터	엽서	도표	조감도및배치도	입장권및초대권	안내팸플릿	사진첩*	기타
국립중앙박물관					1			1	
국립춘천박물관			3						
국립민속박물관			3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	36		1	2		1	1
서울역사박물관			12				3	1	
국립한글박물관								1	
부산광역시립박물관			50						
울산박물관								1	1
수원시박물관									1
수원광교박물관			17					2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8		12		2	2			1

표 4 유형별 조선박람회 기록물 소장 현황(박물관 소장)

4)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아카이브¹⁹⁾

서울학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자료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상세하여 이용자가 유물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부의 일본인 기업 및 상점에 관한 시각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어 기업 특설관 정보와 연계할 수 있다.

5)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자료²⁰⁾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도서, 잡지, 고전적자료 박사논문 등 200만 점 이상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본고의 자료 분석 대상인 『조선박람회기념사진첩』의 원문을 LOD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낱장단위로 URL을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의 주요 사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 국내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

18) <http://www.emuseum.go.kr/main>

19) https://museum.seoul.go.kr/archive/NR_index.do

20) <https://www.ndl.go.jp/ko/index.html>

『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문화연합회의 『지역N문화포털』 등에서 조선박람회와 관계된 디지털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박람회 국내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은 모두 개별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구축되어 있고, 주로 ‘일제강점기’ ‘일상사’ ‘총독부’ ‘수탈’ ‘근대’와 ‘소비사회’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라는 점이다. 이중 ‘조선박람회’를 중심으로 구축된 디지털콘텐츠는 국내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구축한 『우리역사넷』이 유일하다.

III. 조선박람회의 아카이브 구현 전략

III-1. 온톨로지 설계

Class Name	국문 클래스 명칭	설명
Record	기록물	조선박람회 개최 및 운영과 관련된 관, 민간 발행 기록물. 연구논저 포함. Subclass: Document, Book, Media, Picture, Bibliography
Place	장소	조선박람회 관련 공간정보를 담은 데이터. 조선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조영된 전시관, 건조물과 관련된 장소, 구역 등의 지명을 가리킨다. Subclass: Exhibition, Palace, District
Event	사건	조선박람회 관련 사건 정보를 담은 데이터. 조선박람회의 개최 경위와 주최 측에 의해 기획, 운영된 공식 행사 및 관련된 정치사회적 사건을 가리킨다. Subclass: Historic, Ceremony
Actor	행위자	조선박람회의 운영 주최와 박람회 참여 기업, 언론사와 개인 등. Subclass: Group, Person
Object	물품	전시관 출품 물품, 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등장한 사물 등.
Concept	개념	Object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장소, 사건, 행위자 클래스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념어, 추상적 내용을 설명.

표 5 클래스 설계

온톨로지	속성	설명
jsexpo	jsexpo:id	식별자

	jsexpo:type	유형
	jsexpo:url	웹 자원 주소
	jsexpo:nationality	국적
	jsexpo:visitor	방문객 수
	jsexpo:area	건평
	jsexpo:description	설명, 사진 등의 캡션
	jsexpo:publisher	최초 발행자
	jsexpo:currentInstitution	현재소장처
	jsexpo:publishingDate	발행날짜
	jsexpo:serialNumber	소장기관 부여 일련번호
	jsexpo:birth	출생일
	jsexpo:death	사망일
	jsexpo:currentAddress	현재 소재지의 주소
	jsexpo:firstAddress	설립주소지
	jsexpo:iconUrl	이미지 웹자원 주소
	jsexpo:firstDate	설립년/월/일
	jsexpo:lastDate	해산년/월/일
dc	dc:title	라벨명, 명칭
foaf	foaf:gender	인물의 성별
geo	geo:lat	위도
	geo:long	경도
time	time:begin	사건 시작일
	time:end	사건 종료일

표 6 속성 설계

Relation	InverseOf	Description	Domain	Range
dcterms:creator	dcterms:isCreatorOf	A는 B가 만들었다 ;창작물-제작자로 인정받는 제작자	Record, Concept, Object	Actor
ekc:writer	ekc:isWriterOf	A는 B가 썼다; 글을 지은 사람	Record	Actor

ekc:creatorPresumed		A의 작가는 B라고 알려져 있다; 창작물-저작자로 추정되는 인물	Record, Concept, Object	Actor
dcterms:hasPart	dcterms:isPartOf	A의 부분은 B이다 ;전체-부분 관계	Thing	Thing
dcterms:publisher	dcterms:isPublisherOf	A는 B가 출판하였다; 필사/간행/중간/영인	Record	Actor
dcterms:type		A의 유형은 B이다; 특정 분류 체계에 배속 가능 시 사용	Thing	Concept
edm:happenedAt		A는 B에서 일어났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Event	Place, Group
edm:isRelatedTo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 기타 포괄적 연관 관계	Thing	Thing
ekc:constructor	ekc:isConstructorOf	A는 B가 건설했다; 건축을 지휘(물리적 토목 건축)	Place	Actor
ekc:isDepictedIn	ekc:isDepictedIn	A는 B를 묘사한다 ;묘사의 주된 대상	Record, Concept, Object	Thing
ekc:documents	ekc:isDocumentedIn	A는 B를 기록하였다.; A:기록물. B: 기록되는 대상	Record	Thing
ekc:isNear		A는 B에서 가깝다; 물리적 인접	Place, Object, Group	Place, Object, Group
ekc:isUsedIn		A는 B에서 사용되었다 ;의례·사건에서의 사용	Object	Event, Concept
ekc:mentions	ekc:isMentionedIn	A는 B를 언급하였다; 내용 중 명확히 언급	Record	Thing
ekc:participatesIn	ekc:hasParticipant	A는 B에 참여하였다; 의례·제도·사건에 참여	Actor	Event, Concept
ekc:servesAs		A는 B를 수행한다 ; B:관직/직무/역할	Actor	Concept
foaf:isMemberOf	foaf:member	A에 B가 소속된다; 조직/기관/단체-소속 구성원	Actor	Actor
owl:same		A는 B와 같거나 유사하다 ;동	Thing	Thing

As		일 또는 유사 관계		
jsexpo:runs	jsexpo:runnedBy	A는 B(전시관)을 운영.	Actor	Exhibition
jsexpo:exhibits	jsexpo:exhibitedBy	A는 B의 전시구성에 관여하였다; 출품자와 출품전시관 관계	Actor	Exhibition
jsexpo:hosts	jsexpo:hostedBy	A는 B 의식, 행사 등을 주최했다.	Actor	Event
jsexpo:hasRecord		A는 B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Actor	Exhibition
jsexpo:plays	jsexpo:playedBy	A는 B에서 공연(또는 연주, 시연)되었다.	Concept	Exhibition

표 7 관계어 정리

III-2. 데이터베이스 구축

- 1) 온톨로지 설계에 따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RDF 형식의 데이터로 변환.
- 2) 변환된 데이터를 웹으로 발행하여 개방형 데이터를 구축한다.
- 3) 조선박람회-연예관의 RDF 개체데이터 예시

<http://dh.aks.ac.kr/ontologies/jsexpo#>

그림 3 ‘조선박람회’ 온톨로지 정의

```
<owl:Class rdf:about="http://dh.aks.ac.kr/ontologies/jsexpof#연예관"/>
<rdf:type rdf:resource="http://dh.aks.ac.kr/ontologies/jsexpo#Exhibition"/>
<jsexpo:isRunnedBy rdf:resource="http://dh.aks.ac.kr/ontologies/jsexpo#경성협찬회"/>
<jsexpo:isMentionedIn rdf:resource="http://dh.aks.ac.kr/ontologies/jsexpo#조선박람회경성협찬회보고서"/>
<jsexpo:isMentionedIn rdf:resource="http://dh.aks.ac.kr/ontologies/jsexpo#조선박람회기념사진첩"/>
<jsexpo:isRelatedTo rdf:resource="http://dh.aks.ac.kr/ontologies/jsexpo#본권번"/>
<jsexpo:isRelatedTo rdf:resource="http://dh.aks.ac.kr/ontologies/jsexpo#한성권번"/>
<visitor rdf:datatype="http://www.w3.org/2001/XMLSchema#int">1169</oldAddress>
<area rdf:datatype="http://www.w3.org/2001/XMLSchema#int">1200</oldAddress>
</owl:NamedIndividual>
```

표 8 ‘조선박람회’ 개체 데이터 설계 예시

위의 설계는 연예관은 클래스 유형으로 ‘Exhibition’을 가지고, Actor클래스의 ‘경성협찬회’에 의해 운영되었다(isRunnedBy). 연예관은 ‘조선박람회기념사진첩’과 ‘조선박람회경성협찬회보고서’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isMentionedIn)연예관은 ‘본권번’, ‘한성권번’노드와 관계가 있다(isRelatedTo), 연예관의 건평은 1,200평이며 일일 방문자 수는 1,169명이다.(『조선박람회경성협찬회보고서』 발췌)

Ⅲ-3. 서비스 시나리오

- ‘조선박람회-연예관’ 개체 탐색 과정을 중심으로 -

Ⅲ-3.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활용

본고는 1929년 조선박람회 개최 기간 당시의 공간, 즉 과거의 특정 시점을 복원한다는 점에서 경관에 대한 복원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²¹⁾ GIS활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POI(Point Of Interest)의 지정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에는 조선박람회장으로 활용되었던 경복궁 구역을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시각화하여 웹에서 구현하도록 한다. 1929년의 조선박람회장 구역(경복궁 내)을 포괄하는 구조물, 즉 전시관, 경복궁 전각, 그 밖의 설치물 등을 POI로 설정하였다.²²⁾

종류	전시관 및 시설명	개수
부대시설	정문 및 매표소, 박람회사무국, 무료휴게소(경회루), 귀빈관(집경당), 광고및선전탑, 육교, 분수대	7
총독부직영관	산업남관, 산업북관, 쌀의관, 사회경제관, 미술공예교육관, 심세관, 교통토목건축관, 사법경무위생관, 기계전기관, 접대관, 내지관, 참고관, 활동사진관, 축산관, 육군관, 해군관, 미터관, 산의관, 석탄관, 수족관	20
조선각도 특설관	경기도관, 충청북도관, 충청남도관, 전라북도관, 전라남도관, 경상북도관, 경상남도관, 강원도관, 평안남도관, 평안북도관, 함경남도관, 함경북도관, 강원도관	13
일본 각부현	오사카관, 도쿄관, 교토관, 규슈관, 나고야관, 히로시마관, 시가현	10

21) 지리학에서는 경관에 접근하는 가장 전통적인 관점으로, 경관을 '실재했던/실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변화의 연속적인 단계에 있는 어느 한 시기를 하나의 단면으로 끊어 복원하는 방법이다.(안팎너머, 『역사지리학강의』, 사회평론, 20쪽)

22) 조선박람회 개최 당시 대부분의 전시관은 새로 지었으며, 식당·연회장·영빈관·조사장·창고 등은 기존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였다. 전시관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은 박람회가 끝난 뒤 일괄 철거되었으므로 당시 발행되었던 전시관 배치도 및 도면을 통해 전시관의 위치파악이 가능하다.

특설관	관, 미에현관, 나라현관, 나가사키상관	
식민지 지방관	훗카이도관, 대만관, 만몽참고관, 화태(사할린-)관	4
기업특설관	미쓰이관, 미쓰비시관, 스미토모관, 농회관, 잠사관, 수산회관, 축산회관, 신문관, 카모츠루관, 레토관, 천일약방관, 조선고무공업소관, 조선제약회사관, 기린맥주관, 경성고무공업소관, 송전청상점관, 스키상점관, 전조선고무연합회관, 조선방직관, 동산농사관, 대일본맥주회사관, 마루젠잉크관, 전조선주조연합회관, 조선방직관, 메이지제과관	25
경성협찬회운영시설	연예관, 음악당, 만국거리, 어린이나라, 해저여행관, 야외극장	6
기타	철도성관, 자동사진관, 조선건축회 출품주택, 제철소관	5

표 9 전시 주제별 전시관 현황

2) POI의 지리적 위치의 좌표값 찾기

조선박람회장내의 전시관의 좌표값 추출을 위해 GIS 기반 무료 오픈소스인 QGIS²³⁾의 지오레퍼런싱 기능을 이용하여 위성지도와 조선박람회장 배치도를 매핑하였다.²⁴⁾

23) 무료 오픈 소스 지리정보 시스템. Linux, Unix, Mac OSX, Windows, Andoid에서 동작하며 수많은 벡터, 래스터, 데이터베이스 포맷과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배포본은 3.14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1)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공간데이터의 시각화 및 전자지도 제작하고 플러그인을 통해 확장된 GIS 기능을 사용하여 웹서비스로 발행할 수 있다.

24) 일반적으로 GIS에서 지오레퍼런서(Georeferencer)는 좌표투영이 되지 않은 항공사진이나 이미지 지도에 실세계 좌표를 할당하는 과정을 의미.[8]좌표값이 불분명한 이미지 지도와 포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위성지도(구글맵, 카카오맵, 네이버지도)를 연계하고 싶을 때 이용한다.